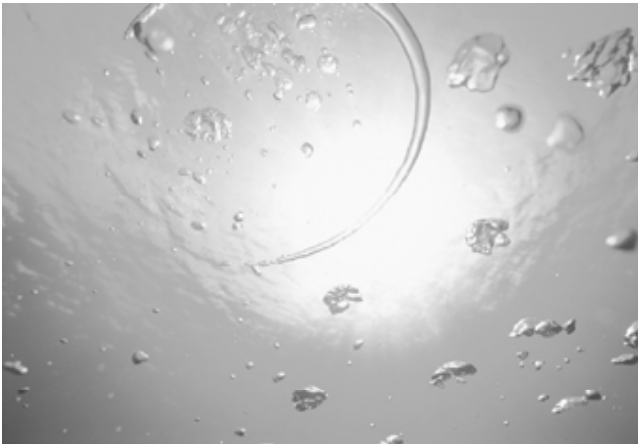


우리 안의 바다

-퀀톤 마린 플라즈마로 생체환경을 복원하다

| 로이 디트만 | 박병오 옮김 |

우리는 바다에서 시작된 단세포에서 기원하므로 그때의 환경이 생체의 기본 환경이고 우리의 체액도 유사하여 그를 통해 모든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의 생체 환경인 우리 안의 바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편집자 주)



2006년 7월에 나는 <생체환경Bio Terrain, 진화생물학, 그리고 1900년대 초의 의술: 르네 퀸톤René Quinton의 ‘마린 플라즈마’ 소개>라는 제목의 글 1부를 발표하면서 생체환경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도구로 ‘퀸톤 마린 플라즈마Quinton Marine Plasma’를 소개했다.¹⁾

2부에서 라울 브루지오니와 나는 지구상의 생명을 뒷받침하고 진화시키는 데 바다가 하는 역할, 더 구체적으로는 마린 플라즈마가 하는 역할을 탐색한다. 그뿐 아니라, ‘퀸톤 마린 플라즈마’가 어떻게 생체환경을 회복시키고 퀸톤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그 인상적인 탁월함을 보여주려 한다.

퀸톤™ 마린 플라즈마™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발표한 기사에 대한 뜨거운 반응 속에서 우리는 마린 플라즈마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많은 추론을 들었다. 나는 마린 플라즈마가 무엇이 아닌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보겠다.

먼저, 퀸톤은 그냥 바닷물이 아니다. 그저 심해나 연안의 바닷물을 펴와서 정수하고서는 퀸톤 마린 플라즈마가 보여주는 임상효과를 재현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둘째로 퀸톤은 플랑크톤이 아니며, 플랑크톤이 들어있지도 않다. 퀸톤은 저온 필터로 거르기 때문에, 유체에서 모든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없어진다.

퀸톤 마린 플라즈마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더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

1) Dittman, R. "Bio Terrain, Evolutionary Biology, and the Practice of Medicine in the Early 1900's: An Intro to René Quinton's Marine Plasma.", *Explore*, 2006.

을 먹으면서 동물성 플랑크톤의 뻑뻑한 장fields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유체다.

프랑스의 생리학자 르네 퀴톤Rene Quinton이 찾아낸 이 유체는 100년이 넘도록 전세계 임상의들이 우리의 ‘내부 환경internal milieu’을 원래 물려받았던 바다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많은 성과를 거뒀었다.

퀴톤이 미량광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육지의 암염층에서 나오는 미량광물질은 무기질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에게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량광물질 하나하나의 양은 표본마다 다르고 인체에서 보이는 비율과 비슷하지도 않다. 육지의 광물질과는 달리, 모든 다량광물질과 미량광물질이 퀴톤에 상승작용을 가져오는 비율로 들어있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퀴톤은 훨씬 그 이상이다.

퀴톤연구소Quinton Laboratoires는 1905년에 세워졌다. 퀴톤 마린 플라스마는 1907년에 하나의 약품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941년에 ‘퀴톤 아이소토닉Quniton Isotonic’과 ‘하이퍼토닉Hypertonic’ 제품들은 약품으로 ‘등록’되었고 프랑스판 ‘의사처방참고집Physician’s Desk Reference’인 ‘딕셔내 비달Dictionnaire Vidal’에 등재되었다. 퀴톤 제품들은 경구용 및 외용제로 1999년까지 비달에 올라 있었다.

오늘날의 진보적인 과학자들도 이제 100년 전에 퀴톤이 알았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로, 마린 플라스마에는 우리의 유전적 잠재력에 정보를 주고 바로 우리의 진화를 이끌면서 우리 ‘내부의 바다’를 조절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삼투와 해양불변성에 대한 퀸톤의 법칙

최초의 동물은 바닷물에서 진화했다. 동물은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한 공생전략을 만들어냈다. 육상생활에 적응하게 된 것은 진화과정에서 근본적인 성취였는데, 여기에는 성공의 가장 중대한 요소인 pH, 광물질 구성, 체온 유지 같은 엄청난 생물학적 진전이 필요했다.

바다를 연구하면 할수록, 진화를 이끌고 있는 바다의 근본적인 역할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1904년 르네 퀸톤은 지구의 바다는 ‘해양불변성marine constancy’이라는 본질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삼투와 해양불변성의 기본법칙을 확립했다. 그런 다음 퀸톤은 몇 년 동안의 연구 끝에 우리의 체액도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²⁾ 퀸톤의 법칙은 그의 심오한 표현인 이 말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겠다.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해양수족관이다!” 1957년에 프랭크 카프라가 제작 감독해서 상을 받았던 영화 ‘Hemo the Magnificent(위대한 헤모)’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서 “피는 바닷물이다”라고 역설한다.³⁾

삼투와 해양불변성에 대한 법칙에서 퀸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모든 생명은 단세포생물로부터 생겨나왔고 이것은 인간세포의 조상이다. 광물질 염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그 생물들의 조건은 그것들이 사는 바닷물로 충족되었다. 바닷물은 아울러 산성·알칼리성의 균형이 쉽게 잡히게도 했는데, 이것은 생체의 항상성에 근본적인 것이었다.
2. 인간은 수억 년 전에 첫 양서류가 생겨나왔을 때의 염분이 더 적

2) Quinton, René : L'eau de Mer Milieu Organique, 1904.

3) Capra, Frank, Hemo The Magnificent, DVD, 1956.

지구의 바다는 해양불변성이라는 본질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며 이것을 삼투와 해양불변성의 법칙이라 한다.
인간의 체액도 같은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해양수족관이다.

있던 바다와 비슷한 등장성等張性의 내부 환경을 유지한다.

3. “바닷물과 유기체의 내부 환경은 물리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일치한다.”

‘우리 안의 바다’가 유전자발현을 특징짓는다

퀀톤의 법칙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발생의 아주 초기에서부터 우리 안의 바다가 가진 생명력은 우리의 개별적인 태아발달을 이끈다. 배아에서 신경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수에서부터 발달하는 우리 안의 바다 또는 ‘조수(潮水; tidal body)’는 신경계와 기관의 형성과정을 지능적으로 조절하고 이끈다.

그뿐 아니라, 조수에 포화상태인 유기광물질들은 엄마의 배대동맥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맥동소리를 전달하는 전도체가 되어서 배아가 뇌의 안뜰신경구역vestibular area을 발달시킨다. 나중에 태아의 피부는 이 조류의 ‘맥동’을 감지하고 여기에 자극받아 신경이 발달한다. 우리가 성장발달하면서 우리 ‘조수’의 건강은 정말로 우리 유전자의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좌우한다.⁴⁾

조수와 내부 환경에서처럼 유기광물질이 풍부한 퀀톤 플라즈마는 우리 세포의 전위電位를 저장해서 세포의 전도성을 높여준다. 우리가

4) Blum, T., Dittman, R. Prenatal, Perception, Learning, and Bonding. Leonardo Publishers, 1993.

태어나면, 우리 안의 바다는 수십 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먹여준다. 세포 사이의 소통이 일어나는 모든 곳과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세포막으로 운반되는 곳에는 이 특별한 세포액이 있다.

그렇게 모든 세포에 스스로의 유전적 뼈대가 들어있는 한편, 세포는 세포외액에서 보이는 후생 유전적 영향요소들에 끊임없이 영향 받고 있다. 연구들은 우리 세포외액에서의 변화는 같은 유전자 청사진으로부터 세포가 2,000가지 이상의 다른 단백질을 만들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⁵⁾ 이런 역학관계의 결과는 비록 유전적 구성이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과 기능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포의 활동은 그 유전자암호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된다”⁶⁾는 것이다.

바다에는 생명의 항상성과 관련된 청사진이 들어있다. 진화를 추동하고 좌우하는 원본 유전자암호다. 마린 플라즈마에서 보이는 광물질, 영양소, 그리고 유전에 관한 정보는 세포외액을 ‘재충전’해서 세포 사이의 소통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인간게놈을 처음 지도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생물학자 크레이그 벤터Craig Venter는 이제 바다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고 인간의 게놈과 지구 위 모든 생명체의 유전적 기원을 밝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것을 이루려고 그는 200마일마다 바닷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목록으로 만들고 있다.

벤처의 연구진은 이제 지구의 바다에 200억 가지나 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바다는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전정보의 풍부한 저장고다.⁷⁾ 자연선택을 거쳐, 인간

5) Lipton, Bruce, 2005.

6) 같은 글.

은 겨우 30,000 가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거기서 18,000 가지나 ‘가짜유전자’ 또는 ‘쓰레기 유전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가짜유전자들을 그저 우리의 진화과정에서 남은 쓸모없는 지스러기로만 여겼다.

지금의 생물학자들은 쓰레기 유전자들이 옆에 있는 유전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 내외부의 환경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면역계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⁸⁾ 우리의 30,000 가지 유전자는 환경에 있는 수십 억 가지의 유전자에 반응하는 데 있어 우리 안의 바다와 상호작용한다.

‘쓰레기’ 유전자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 환경상황에 적응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을 법도 하다. 우리가 진화의 미로 속을 헤쳐 나가면서 몸의 유전적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말이다. 마린 플라สมา를 마시면, 우리는 짹짹한 플랑크톤 대발생에서 보이는 수십 억의 유전자와 수백만의 생명체에 저장된 유전적/후생적 정보가 미량희석된 것을 우리 몸에 주어서 이 업그레이드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육지에 매인 우리 몸은 만성적인 광물질 결핍에 시달린다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생겨나온 이유로, 우리 안의 생명활동은 바다에서 보이는 광물질 염분의 완전한 비율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육지에 기대어 사는 생활방식은 우리 안의 바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7) Voyage of the Sorcerer: J. Craig Venter cracked the human genome. Now he's set his sights on a new frontier: life under the sea”, On Earth Magazine; Summer 2006, p. 8-9.

8) Gerstein, Mark; Zheng, Deyou, “The Real Life of Pseudogenes.” Scientific American, August 2006.

원료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육지에 둘러싸인 우리 몸은 영양분에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유기’ 광물질의 균형을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기르는 흙과 또 그래서 먹는 영양제에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온전한 범위의 미량광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농업부장관을 역임한 앙드레 브와종이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암은 필수영양소의 부족과 관련 있다.⁹⁾ 분명히 광물질의 균형을 다시 잡는 일은 생체환경을 되돌리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하나다. 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1936년에 미국의회가 우리의 작물이 광물질이 고갈된 흙에서 자라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인간의 건강이 고통 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문서 264를 발표했을 때 이미 예측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따온 것이다.

“흙이 병들었다는 것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병들었다는 뜻이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의 풍부하고 적절한 비율의 광물질에 크게 좌우된다. 신경기능, 신경안정과 신경세포의 형성 또한 미량광물질에 의존한다.”¹⁰⁾

시간이 갈수록 광물질의 결핍은 만성적인 산성화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몸에서 필수 광물질의 고갈이 누적되고 그 때문에 산성화가 한층 더 심해지는 양성 되먹임 고리(positive feedback loop)가 작동하게 되어 우리의 세포방어력이 약해진다.¹¹⁾

9) Voisin, André Soil, Grass, and Cancer.

10) United States issued Document 264, 1936.

11) Passebecq, André M.D., Ph.D., N.D., Soulier, Jean Marc Soulier, Ph.D.: “Human Plasma and Ocean Plasma: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erapeutic Properties of Seawater Preparations.” 1992.

미량광물질은 바다와 우리 내부 환경에 있는 전해질의 3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며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낸다. 금속의 10억분의 1그램(나노그램)에는 25억 개의 원자가 있다. 효소 하나가 활성화하는 데에는 1~10개의 원자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극미한 양이지만 유기질의 ‘살아있는’ 미량광물질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으로도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 때문에 잃은 균형을 되찾을 수가 있다.

광물질을 생리활성상태로 바꾸는 플랑크톤

미생물은 무기질 광물질을 먹고서 그것을 ‘유기질’ 결정상(結晶相) 상태로 바꾼다. 마린 플라즈마에는 플랑크톤 대발생에서 보이는 엄청난 양의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곤, 미생물)이 바꾸어놓는 유기질 결정상의 광물질이 온전하게 들어있다.

세포수준에서 무기질 광물질은 쓸모가 없으므로 세포막을 지나가서 세포활동을 조절하려면 그 결정상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 결정상 광물질은 세포 안팎에서 후생적인 수준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전적인 잠재력을 이끌도록 세포막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기질 염분이나 무기질 원소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무기질 원소를 탄소원자와 결합시켜 유기질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장 안에 식물성 박테리아가 있어야 한다.”¹²⁾ 안타깝게도, 항생제의 등장과 칸디다균의 증식으로 무기질 원소를 유기질 상태로 바꾸는 장 속 세균의 능력은 크게 떨어졌다.

세포외액에서 보이는 결정상 광물질의 상승작용은 생체환경의 건강과 이에 따른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아울

Murray, Maynard, Sea Energy Agriculture, 1976.

러 세포외액에서 보이는 광물질과 수질도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질을 결정한다.

1994년 비엔나대학교 조직학 및 발생학학과장인 피싱거Pischinger는 세포 사이에 교환되는 모든 정보가(신경자극, 대사, 면역과정, 도관전달 vascular process 등) 세포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포외액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피싱거는 이렇게 주장했다. “살아있는 세포 사이의 가장 오래된 소통체계는 원래의 바닷물이다.”¹³⁾

그렇다면 지극히 주요한 세포외액을 다시 광물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세포외액에 원래의 바다 유산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

퀸톤 마린 플라스마는 ‘살아있는’ 상태일 때 유익하다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지 않다.’ – 괴테

르네 퀸톤은 자신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었다. (1) 마린 플라스마는 임의의 지점에서 추출해내지 못한다. (2) 마린 플라스마는 바닷물보다 임상적으로 우수하다. (3) 마린 플라스마는 그것이 녹아있는 바닷물 기질基質 속에 ‘살아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책인 『생체 안의 바닷물L'eau de Mer Milieu Organique』에서 르네 퀸톤은 마린 플라스마를 말리면 ‘살아있는’ 광물질과 단백질 복합체가 돌이킬 수 없도록 손상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린 플라스마를 되돌려서 건강에 주는 같은 효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여주었다.¹⁴⁾ 이것은 마린 플라스마가 건조되면 광

13) Pischinger, A, “Basal regulation systems”, Ed. Haug 1994.

물질은 그 ‘살아있는’ 결정상 상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물은 보편적인 분자이자 효과적인 용매다. 물은 그 속에 녹아있는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마린 플라스마에 저장된 광물질, 유기화합물, 그리고 유전물질은 지적으로 우리를 진화하게 할 수도 있는 생물학적 정보의 모체를 이룬다.¹⁵⁾

퀸톤이 이 점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했다. “마린 플라스마는 그 특유의 생물학적 활동과 살아있는 매질의 분자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마린 플라스마에 들어있는 미량원소 모두가 용액에서 활성상태로 나타난다.”¹⁶⁾ 안타깝게도, 말린 바다소금을 먹으면 효과적인 무기물 미량원소 복합체는 섭취하지만, 마린 플라스마에 저장된 생물학적 정보는 받지 못한다.

퀸톤은 생체 환경을 되돌린다

최적의 내부 환경 또는 생체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항상성이 지켜져야 한다. 건강한 유기적 생체환경은 건강의 바탕이 되고 반대로 질병은 고갈되었거나 정체된 생체환경에서 진전된다. 대부분의 질병을 거슬러 올라가면 균형을 잃은 생체환경이 있다.”¹⁷⁾

14) Quinton, René. 앞의 책.

15) Dang Vinh Luu and Claudine Luu. “Connaissance de l’eau”. University of Montpellier, INDERPLAM 1993.

16) Quinton, René. 앞의 책.

17) Passebecq, André M.D., Ph.D., N.D., Soulier, Jean Marc Soulier, Ph.D. 앞의 글.

고갈된 생체환경에서는 목표로 하는 영양소가 의도했던 기능을 해 내지 못한다. 킨톤 마린 플라스마는 “우리 안의 바다”의 온전함을 다시 채워줘서 아래에 있는 양극성을 대다수 직간접적으로 해결해준다.

생체환경을 고려하는 임상 의들은 다음의 균형을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

알칼리성	산성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화작용	동화작용
음	양
결핍(허)	과다(실)
생명에너지, 정보	물질
내부(정신/정서)	외부(육체)
환원	산화

어떤 중요한 영양소가 만성적으로 결핍 또는 과잉이라면 질병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이다. 임상 의들은 한 가지 영양제가 한 가지 양극성을 균형 잡으면서도 또 다른 양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애쓴다. 예를 들어 비타민 B를 먹으면 한 가지 결핍을 균형 잡을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비타민 B는 과도한 열을 내게 하면서 만성적인 산성화와 탈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이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보통 어떤 영양제를 흡수, 동화하고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은 제품 자체로 얻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양제에 든 성분의 다수는 흡수가 잘되지 않으므로 동화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장, 간, 콩팥이 없애야 하는데,

체내 광물질 결핍은 만성적인 산성화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몸에서 필수 광물질의 고갈이 누적되고 그 때문에
산성화가 한층 심해지는 양성되먹임고리가 작동하게 되어
우리의 세포방어력이 약해진다.

이것은 몸을 더 많이 탈수시키고 산성화시킨다.

그렇지만 키톤 마린 플라스마는 수동화산을 거쳐 장에서 흡수된다. 유기 광물질과 바다의 보조인자들은 동물성 플랑크톤들 ‘미리 소화해 놓았기’ 때문에, 동화의 전제조건인 능동소화가 필요하지 않다.

진화의 미래

우리는 이제 진화와 우리 건강의 최적화를 위한 조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생식의 모든 분야가 흔히 우연에 원인을 둔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세상에 내 던져져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상이었다. 이 생존으로 우연한 형태의 진화가 생겨났다.

키톤 마린 플라스마가 있어서 우리는 생체환경을 다시 채우고 되돌리며, 우리 안의 환경에서 변형해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가진 셈이다. 변형은 새로운 종류의 진화를 낳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환경을 이끌고, 균형 잡고, 개선시킬 수 있다.

키톤에는 우리의 생리를 조절하려고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기능성 제품, 약품, 촉진제를 이끌고 균형 잡고 조절하도록 돕는 항상성의 토대를 만들어내서 다가오는 생명공학의 시대에 하게 될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키톤이 임상인들의 프로토콜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퀸톤이 생체환경을 복원하는 데 무척 효과적이므로, 부차적이고 더 즉각적인 생리적 문제와 증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앞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게 된 커다란 사실은 퀸톤 마린 플라즈마를 꾸준히 적용하면서 많은 증상과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환자의 평가가 단순해지면서 개인에 따른 특이하고 더 미세한 상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근본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임상적의 최적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목표가 되는 요법, 기능성 제품, 그리고 생체에너지 제품을 이용해서 개인의 불균형을 적절히 다룰 수가 있다.

퀸톤™ – 임상활용을 위한 특징*

퀸톤 마린 플라즈마는 두 가지 뚜렷한 형태로 제조된다. (1) 인간의 혈장 염도인 0.9%에 맞도록 정밀하게 희석한 등장액(isotonic solution), (2) 염도 3.3%의 희석하지 않은 고장액(高張液; hypertonic solution). 먹는 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먹는 것이 임상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퀸톤 아이소토닉의 전반적인 효과는 하이퍼토닉보다 더 완만하고 따라서 민감한 사람에게 더 잘 맞는다. 다음의 내용은 퀸톤 아이소토닉과 하이퍼토닉이 다양한 임상적인 관점에 따라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요약한 것이다.¹⁸⁾

자연요법과 생체환경에서의 특징

- 체액의 균형을 잡는다.

18) Mahé, André, Brugioni, R. O Segredo das Nossas Origens O Plasma de Quinton.

-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나아지게 한다.
- 독소를 제거하고 과도한 열을 내리며, 부신, 뇌하수체, 갑상샘, 생식샘의 결핍된 기능을 뒷받침한다.
- 피로, 처짐과 여러 우울한 상태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데 탁월하다.
- 장기의 생리적 성장발달을 촉진한다.
- 몸이 염증을 줄이도록 돕고 감염과 기생충으로부터의 방어력을 키워준다.
- 뇌와 신경계에서 억제된 메틸화methylation와 대사경로를 되돌리고 열어준다.
- 세포 안팎의 일반적인 소통을 나아지게 하고 막전위membrane potential를 되돌린다.
- 생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것은 생균미생물의 증식을 늘린다.
- 삼초三焦/심포心包 기능(갑상샘 기능과 말초 순환/수족냉증)을 개선한다.
- 지나친 땀, 육체활동, 설사와 커피섭취로 깨진 광물질 균형을 바로잡는다.
- 다른 영양소 흡수를 늘려준다.

정골요법에서의 이로운

- ‘조수’를 재설정하고 되돌려서 분당 맥박수를 낮춘다.
- 수기手技치료의 의도했던 결과를 얻게 하고, 정묘체subtle body, 육체와 감정체를 조절한다.

동양의학적 특징

- 기혈氣血의 흐름을 좋게 한다.
- 두껍고 매끄러운 설태舌苔를 줄인다.
- 습열濕熱을 줄인다.
- 정精을 되찾아준다.
- 신양腎陽과 신음腎陰을 되찾아준다.
- 금기金氣의 장기(폐, 대장)에 담액膽液이 쌓이는 것을 줄인다.
- 소화효소의 분비를 늘려서 토기土氣 장기(비장, 위장)의 기능과 소화를 좋게 한다.
- 비장을 보補한다.
- 피부의 열독과 화火를 내린다(외용 및 경구용).
- 대장의 습열을 없앤다.

일반 지침과 이로움

- 피부상태, 소화문제를 바로잡고, 정신집중을 돕는다.
- 체내 산도pH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다.
- 면역기능의 최적화를 돕는다.
- 어떤 경우들에는 기초체온을 일시적으로 아주 조금 오르게 한다.

퀀톤™ 아이소토닉*

일반 지침과 이로움

어린이, 고령의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과민성 알레르기 환자에게 권장한다. 아이소토닉은 보통 불안 초조를 다루는 데 쓴다. 음식물과 여러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의 과민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리적 특징

교감신경의 항진과 빠른 산화작용과 관련된 문제에 사용한다.

동양의학적 특징

- 음陰, 시원하게 하고, 진정시키며, 균형 잡는다.
- 신神을 안정시킨다. 심화心火를 줄인다.

아유르베다에서의 특징

‘달’의 성질 또는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다.

그 밖의 특징

요가, 명상, 잠, 운동 뒤의 휴식에 아주 좋다.

퀀톤™ 하이퍼토닉*

일반 지침과 이로움

신진대사에 동화작용을 한다. 지구력과 힘을 키워준다. 활발한 육체 활동과 강렬한 정신활동에 아주 좋다.

생리적인 특징

부교감신경의 항진과 느린 산화작용과 관련된 상태에 사용한다.

동양의학적 특징

양陽, 따뜻하게 하고, 힘을 주고, 재충전하며, 증진하고 강화한다. 폐경기의 음허陰虛에 탁월하다. 생식기능과 기를 되찾아준다.

아유르베다에서의 특징:

‘해’의 성질 또는 활력을 주는 성질이 있다.

* 표시가 있는 서술은 식품의약품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 제품은 어떤 질병이나 상태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끝) 

- 이 글은 『Evolutionary Development of Our Internal Ocea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로이 디트만**(Roy Dittman) | 한의사, 미국, doctor@dittman.us, www.brightonbaby.com

저자 | **라울 브루지오니**(Raul Brugioni) | 생물학자, 브라질

역자 | **박병오** | 〈지금여기〉번역위원